

연구논문

폭력피해와 범죄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이민아** · 김정민***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기초하여 폭력피해경험과 범죄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대인신뢰가 폭력피해경험과 범죄불안의 효과를 조절하는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소벨(Sobel) 검증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폭력피해경험과 범죄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을 높였으며, 폭력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 범죄불안이 10% 수준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범죄불안과 대인신뢰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폭력피해경험과 대인신뢰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대인신뢰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피해경험이 가진 부정적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폭력피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우울은 대인신뢰에 따른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신뢰가 폭력피해경험자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폭력피해경험, 범죄불안, 우울, 대인신뢰, 조절효과, 일반긴장이론

*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malee@cau.ac.kr),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oioou.08oti@gmail.com), 공동저자.

I. 서론

폭력피해(violent victimization)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e.g., Gilboa-Schechtman & Foa 2001). 일반적으로 사기, 절도, 폭력 등의 범죄피해자는 우울, 불안 등 일종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데(e.g., Kilian et al. 2021), 특히 폭력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폭력범죄보다 더 심각하며(van der Velden et al. 2020), 가까운 사람에 의한 정서적 언어 폭력 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매우 크다(Teitelman et al. 2011). 더구나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완화되기보다는 지속되어 생애과정 동안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2015). 여러 연구들이 폭력피해경험이 우울, 불안, 행복 등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e.g., 김성언 2018; Hanslmaier 2013; Lewin et al. 2011).

이러한 폭력피해경험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함께 고려되는 요인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정신건강에 독립적인 영향을 가질 뿐 아니라(e.g., Stafford et al. 2007) 폭력피해경험과도 연관된다. 피해경험이 미래에 발생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범죄/폭력 피해자 중 59.6%가 피해발생 후 두려움과 불안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황지태·노성호 2010). 폭력피해경험은 다시 유사한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몇몇 선행연구들은 피해경험이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여 결과적으로 우울을 높이고(Perron et al. 2008)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Hanslmaier 2013; 조준택 2019).

그러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직접적인 피해경험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Adams & Serpe 2000; Shippee 2012), 이 두 요인이 정신건강에 상호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그 부정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자기통제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를 분석한 한 연구는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더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hippee 2012). 피해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경우, 정신건강에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이 연구는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고려하고, 우울과의 관계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와 피해경험과 두려움이 상호작용효과를 갖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는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이론들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두 요인 간의 관계와 그 메커니즘을 이론적 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부정적 자극을 유발하는 폭력피해경험과 두려움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반긴장이론을 정신건강의 영역에 적용하고자 한다. 일반긴장이론은 부정적 생애사건(자극)과 일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우울, 불안 등의 정서(감정)를 강조한다는 점에서(Agnew 1992; 2002) 정신건강에 대한 이론적 유용성을 갖고 있음에도 정신건강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이지 않았다(e.g., Dario & O'Neal 2018). 국내에서는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한 몇몇 선행연구들이 폭력피해경험과 자살위험성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우울의 역할을 밝힌 바 있으나(e.g., 김은영 2014),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와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에 기반하여(Agnew 2002), 직접적 피해(experienced victimization) 유형인 폭력피해경험과 예견된 피해(anticipated victimization)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 자극의 효과를 조절하는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효과가 어떠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즉, 조절요인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 물론 선행연구들이 유의미한 조절요인들을 탐구해왔으나 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한계가 있다(e.g., 김수연·최진아 2018).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조절요인으로서 대인신뢰를 제안, 분석하고자 한다. 대인신뢰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작동하기 때문에(이민아 2013) 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 혹은 조건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절효과를 탐구함으로써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는 데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1)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범죄불안)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2)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폭력피해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 매개 혹은 조절(강화)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여 피해경험과 범죄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3) 대인신뢰가 피해경험과 범죄불안의 효과를 조절하는지 검토함으로써 대인신뢰가 부정적 자극에 대응하는 심리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사회학자 뒤르켐은 사회적 규제 혹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즉 개인의 욕망을 규제하는 규범이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을 아노미라고 하였고 이는 전체 사회 혹은 집단 내에서의 무규범상태를 의미한다(뒤르켐 2012[1893]; 2008[1897]). 뒤르켐의 아노미 개념을 발전시킨 머튼은 아노미를 문화적으로 정의된 열망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수단 사이의 간극으로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위로 범죄와 일탈에 주목한 바 있다(Merton 1957). 머튼에 따르면 사회 내에서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열망(경제적 성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간의 간극이 아노미, 즉 긴장을 형성하고 이 긴장의 존재가 일탈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일반긴장이론은 이러한 아노미, 긴장에 대한 이론적 흐름하에 발전하였다(Agnew 1992; 2002). 머튼이 일탈에 주목하였듯이 일반긴장이론도 범죄와 일탈에 초점을 맞추지만, 긴장의 발생 및 긴장과 일탈 간의 경로에 대한 좀 더 정교한 논의를 제공한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긴장요인이 일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긴장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긴장요인은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그리고 부정적 자극의 출현이다(Agnew 1992). 이 중 특히 부정적 자극은 여러 선행연구들이 주목한 긴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부정적 자극을 발생시키는 사건으로 학교폭력, 범죄피해, 취업스트레스 등 여러 생활사건들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건들의 영향력을 검

증해 왔다(e.g., 김재엽 외 2008; 남석인 외 2011; 윤우석 2016; Kaufman 2009). 특히 학교폭력, 학대, 성폭력 등의 폭력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긴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탈을 유발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긴장이론은 일탈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이론적 유용성을 갖는다. 개인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긴장이 일탈을 유발하는데, 이때 긴장요인과 일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이기 때문이다(Agnew 1992; 2002). 긴장의 발생 및 높은 수준의 긴장은 공포, 우울, 좌절, 불안, 분노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정서)을 유발하고, 이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개인의 대응결과가 범죄와 일탈이라는 것이다(Agnew 1992; 2002). 즉, 부정적 정서는 긴장요인과 일탈행위를 잇는 매개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긴장요인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긴장요인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탈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긴장이나 부정적 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방법 혹은 자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탈행위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긴장이론은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매개요인으로 상정할 뿐 아니라 긴장요인과 일탈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의 존재에도 주목한다. 애그뉴는 조절요인으로 개인적인 특성 혹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Agnew 2006; 2013). 긴장이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기통제력, 도덕적 신념 등과 환경적 특성으로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가 포함된다. 즉, 긴장요인이 발생하거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자기통제력이나 도덕적 신념이 높은 경우, 그리고 긍정적인 수준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일탈행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e.g., 이도선 2011; 조영오 2021; Robbers 2004; Cheung & Cheung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긴장이론은 일탈뿐 아니라 정신건강의 영역에도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우울,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와 정신적 긴장상태를 초점으로 하여 이를 유발하는 부정적 자극의 역할을 탐구하고, 부정적 자극과 부정적 정서 간의 경로와 이 관계에 개입하는 조절요인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긴장이론은 부정적 자극 등의 긴장요인과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와 이 관계에 개입하는 조절요인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하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2. 폭력피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건강

많은 선행연구들이 폭력피해가 우울, 불안, 행복 등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e.g., 김성언 2018; Hanslmaier 2013). 폭행, 협박, 괴롭힘, 성폭행 피해 등을 포함하는 폭력피해는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김성언 2018), 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도 피해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Hanslmaier 2013). 또한 폭력피해는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자기통제력을 낮추고(Shippee 2012),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는 청소년기 우울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이한주 2017) 어린 시절의 학대피해경험은 성인기 우울과도 연관된다(Lee 2015).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우울증, 불안, 자살위험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Dario & O'Neal 2018; Leone & Carroll 2016). 성폭력 피해자와 비성폭력 피해자를 비교한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가 비성폭력 피해자보다 정신적 외상에 대한 회복이 더뎠음을 보여주어 성폭력 피해가 더 심각한 영향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하였지만, 두 폭력피해 모두 우울증을 유발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Gilboa-Schechtman & Foa 2001). 가족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경험은 공포나 무력감 등을 높이고 정서적 고통의 수준을 높이며(Frazier et al. 2009),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도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지태·노성호 2010).

일반긴장이론에서 폭력피해는 우울, 분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부정적 자극의 한 유형이다. 폭력피해는 부정적 자극의 출현을 의미하며 개인은 피해경험으로 인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폭력피해 경험뿐 아니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자극이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Agnew 2002), 부정적 자극으로서 피해는 다시 직접적 피해(experienced victimization), 간접적 피해(vicarious victimization), 그리고 예견된 피해(anticipated victimization)로 나뉜다. 본인의 폭력피해경험이 직접적 피해라면 가족, 지인 등의 타인의 폭력피해는 간접적 피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예견된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은 모두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직접 피해경험과 예견된 피해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서로 연관될 수 있

다.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피해경험은 미래에 다시 유사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것이 만성적 긴장이 되면서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몇몇 선행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범죄피해경험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효과를 가졌고(조준택 2019), 폭력피해경험은 안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매개로 우울을 높였다(Perron et al. 200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불안이 폭력피해와 정신건강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피해경험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Adams & Serpe 2000; Shippee 2012).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해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주지역 혹은 국가 수준의 실제적 범죄율, 범죄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거주지역의 무질서 정도, 성별 등의 요인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nslmaier 2013; Roccato et al. 2011; 이민아 2020). 한 연구에 따르면 폭력을 포함한 범죄피해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거주지역의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다(Roccato et al. 2011). 피해경험이 반드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Adams & Serpe 2000). 여러 연구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불안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고려했고, 두려움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e.g., Stafford et al. 2007).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경험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두려움이 폭력피해와 우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해야 한다. 피해경험의 부정적 영향력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폭력피해경험과 두려움이 중첩될 때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자기통제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경험의 복합적 영향을 분석한 한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부정적 효과가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hippee 2012). 또한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우울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취업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자살생각을 강화하

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윤우석 2016).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을 모두 가질 때 자살생각이 더 높아졌던 것이다. 반면, 성폭력 피해가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 연구는 우울과 분노가 유의한 매개효과는 없었지만 둘 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우울이 높을 때 분노가 일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일종의 상쇄효과를 발견한 바 있다(Constantin & Boyett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종속변수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두 가지 부정적 요인인 폭력피해와 두려움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함의한다.

3. 대인신뢰: 조절효과의 가능성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는 인지적 사회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로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다(이민아 2013). 타인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성과 타인과의 호혜성을 높임으로써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퍼트남은 신뢰를 호혜성과 함께 긍정적인 사회자본으로 강조하였으며(Putnam 1993), 이미 여러 연구에서 높은 신뢰수준은 우울을 낮추고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e.g., 이진향 외 2011; Rose 2000).

대인신뢰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이라면 신뢰는 부정적 자극으로부터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인신뢰는 폭력피해경험 혹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 인지적 사회자본으로서의 대인신뢰가 부정적 자극이나 경험으로부터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대인신뢰가 부정적 자극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심리사회적 자원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면, 긴장요인이 발생하거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자기통제력이나 도덕적 신념이 높은 경우와 긍정적 수준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일탈행위로 나아가지 않는다(e.g., 이도선 2011; 조영오 2021; Robbers 2004; Cheung & Cheung 2010). 이러한 가능성은 정신건강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는 폭력피해의 부정적 영향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e.g., 김수연·최진아 2018), 부모/친구 등과의 사회적 관계(e.g., 전신현 2018), 청소년의 학업탄력성(김진숙 외

2013)의 조절효과를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비해 대인신뢰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독일의 한 연구는 대인신뢰를 포함하는 인지적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이것이 범죄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Kilian et al. 2020). 피해경험이 있을지라도 높은 수준의 인지적 사회자본이 있다면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향후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관계에서도 인지적 사회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졌다(Kilian et al. 2020). 그러나 이 연구는 인지적 사회자본을 측정할 때 대인신뢰만 독립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나 호혜성 등을 포함한 합성측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대인신뢰의 독립적인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빈곤한 지역의 거주자들의 경우 대인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Mitchell & LaGory 2002). 이러한 연구들은 대인신뢰가 부정적 자극으로부터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폭력피해경험과 대인신뢰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는 신체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또래피해경험이 신뢰를 낮추어 우울이나 외로움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etts et al. 2017). 또한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공격적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보고된다(Kim & Lee 2020). 이러한 연구들은 피해경험과 정신건강 간에 대인신뢰의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함의하지만 두 요인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분석의 필요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갖는 부정적 영향력이 대인신뢰가 높을 때 감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대인신뢰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라도 대인신뢰가 부정적 자극을 완화하는 효과가 아닌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은 대인신뢰와 긴밀한 연관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때 우울이 더 높아지는 관계도 가능하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만족도 간에 대인신뢰의 매개효과가 존재함이 보고된 바 있지만(최동주·이묘숙 2016) 둘 간의 상호작용의 존재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우울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폭력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즉, 폭력피해경험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고, 이는 다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상호작용(강화)효과를 갖는가? 즉, 폭력피해경험과 높은 두려움이 중첩될 때 우울이 더 높아지는가?
- 대인신뢰는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 각각의 조절효과를 갖는가? 이러한 조절효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III.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이다.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에서 7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이며 총 3,839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정해식 외 2017). 면접 대상자는 확률비례계통추출(probability proportional 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통해 표본규모의 편차가 고른 집계구 수에 대한 제곱근 비례 배분하였는데, 표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5년 집계구 리스트를 통해 400개 집계구를 추출하고 신규 아파트 지역에서 100개 집계구를 추출하였다. 경기도의 3개 집계구와 강원도의 2개 집계구의 경우, 별장 지역과 공장 지역 등의 문제로 동일 지역 내에서 5개 집계구를 대체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표본 집계구 500개에서 8가구씩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하고, 계통추출한 집계구 표본 가구에서 만19세 이상 가구원을 추출한다. 따라서 표본 단위는 가구 내 1인이며, 19세 이상 75세 이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1인이 최종 면접대상자가 되었다(정해식 외 2017).

2. 변수측정

1) 종속변수: 우울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이다. 우울은 CES-D 11(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11)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척도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일주일간 다음의 11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2) 비교적 잘 지냈다, (3) 상당히 우울했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9) 마음이 슬펐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각 항목의 응답범주는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1점)’에서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 (4점)’이었으며 ‘비교적 잘 지냈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의 경우는 역코딩하였다. 모든 문항의 값을 합한 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0.864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절단점을 기준으로 우울증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 아닌 연속변수로 측정한 우울 수준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우울을 연속변수로 측정하면 표본의 평균적인 수준 및 정도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irowsky & Ross 2002).

2) 독립변수: 폭력피해와 범죄불안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폭력피해경험은 응답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폭력피해(신체, 정서, 언어, 성폭행 등)¹⁾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1값, 없는 경우가 0값을 갖는 이분변수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지에 근거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된다(e.g., 박종훈 외 2018). 이 연구에서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즉 범죄불안은 응답자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과 같은 범죄’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한지 혹은 불안하지 않은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범주는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아지도록 ‘전혀 불안하지 않다(1)’에서 ‘매우 불안하다(5)’의 순서로 코딩하였다.

1) 설문지에는 제시된 표현은 폭력피해가 아니라 ‘폭행피해(신체, 정서, 언어, 성폭행 등)’였음을 밝힌다. 그러나 조사문항의 예시가 정서, 언어 관련 피해경험을 포함하고 있어 폭행보다는 폭력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하였다.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되어 정서, 언어폭력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절변수: 대인신뢰

대인신뢰는 사람, 타인에 대한 신뢰를 묻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곽윤경 2020; 김미곤 외 2014).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매우 동의한다(1)’에서 ‘매우 반대한다(5)’로 코딩되었으며 3개 문항의 응답을 모두 합한 값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대인신뢰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716이다.

4) 통제변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로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1값을 갖는 이분변수이며 연령은 연속변수이다. 경제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로그화한 가구소득을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1)에서 대학원 이상(6)의 범주를 갖는 연속변수로 포함하였다. 결혼상태는 유배우자, 이혼이나 별거, 사별, 결혼한 적 없음(미혼)의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되며, 분석모형에는 유배우자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정적 사건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1)’에서 ‘매우 좋다(5)’까지의 값을 갖는다. 부정적 생애사건은 폭력 관련 경험이 아닌 다른 유형의 부정적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폭력피해와 범죄불안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입하였다. 변수측정에 포함된 8가지 유형의 부정적 생애사건은 (1)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2) 본인의 신체·정신 질환, (3)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정신질환, (4) 자연재해, (5) 사고경험, (6) 본인(혹은 가족의)이혼이나 별거, (7) 재정적 문제, (8) 학업·업무·취업에서의 실패나 어려움이며 이 중 응답자가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한 부정적 사건의 총 개수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이며 두 가지 단계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단계는 폭력피해경험과 범죄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은 위계적 방식으로 네 가지의 모형으로 구성된다. 모형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부정적 사

건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범죄불안과 대인신뢰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범죄불안과 대인신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특히 모형 1과 2의 위계적 방식은 범죄불안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Baron & Kenny 1986). 특정변수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는 몇 가지 조건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먼저,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매개변수가 포함되었을 때 주요 독립변수(이 연구의 경우 폭력피해경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범죄불안)가 포함되기 전의 모형에 비해 감소하거나 유의성이 감소 혹은 사라진다면 매개변수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추가적으로 범죄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증하기 위해 소벨(Sobel)검증을 활용하였다(Baron & Kenny 1986).²⁾ 모형 4는 폭력피해경험과 범죄불안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두 요인 간에 강화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 분석단계는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이다. 우울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모형에 폭력피해경험과 대인신뢰, 범죄불안과 대인신뢰 간 상호작용 변수를 각각 투입하여 대인신뢰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기초통계를 제외한 모든 다변량분석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폭력피해에 따른 차이

<표 1>은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는 기초통계와 폭력피해 경험여부에 따라 각 변수의 평균이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t 검정 결과이다. 전체 분석표본에서 우울의 평균은 14.992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4.7%가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체 표본에서 여성이 49.9%였고 평균연령은 46.185였다.

폭력피해 경험여부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평균이나 비율을 비교한 t 검정 결과

2) 이를 위해 범죄불안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보수적인 검증을 위해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를 살펴보면,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피해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우울이 높고, 범죄불안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없는 응답자에 비해 대인신뢰의 수준은 낮았다.

또한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연령이 낮았으나 가구소득에는 차이가 없었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 상대적으로 이혼이나 별거 중인 응답자와 비혼상태인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의 수준은 더 낮았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더 많은 수의 부정적 생애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변량 분석

	전체 (N=3,839)		피해경험 없음 (N=3,658)		피해경험 있음 (N=181)		t 검증
	평균/ 비율	표준 편차	평균/ 비율	표준 편차	평균/ 비율	표준 편차	
우울	14.992	4.626	14.824	4.453	18.403	6.409	***
폭력피해경험	0.047						
범죄불안	3.097	1.063	3.082	1.055	3.403	1.182	***
대인신뢰	7.391	2.031	7.421	2.013	6.773	2.282	***
성별(여성=1)	0.499		0.500		0.481		
연령	46.185	15.158	46.295	15.183	43.967	14.493	*
가구소득(로그)	5.745	0.650	5.745	0.650	5.734	0.650	
교육수준	4.111	1.028	4.106	1.029	4.227	1.010	
결혼상태							
유배우자	0.667		0.672		0.552		***
이혼, 별거	0.049		0.048		0.083		*
사별	0.064		0.063		0.077		
결혼한 적 없음	0.220		0.217		0.287		*
주관적 건강상태	3.803	0.922	3.817	0.916	3.530	0.992	***
부정적 생애사건	0.925	1.339	0.800	1.176	3.442	1.866	***

주: 각 표본의 수는 무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분변수의 경우 표준편차를 제시하지 않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2. 폭력피해, 범죄불안과 우울

<표 2> 폭력피해경험, 범죄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성별(여성=1)	0.222 (0.159)	0.160 (0.157)	0.173 (0.156)	0.171 (0.156)
연령	-0.016* (0.008)	-0.013 (0.008)	-0.012 (0.008)	-0.012 (0.008)
가구소득(로그)	-1.005*** (0.178)	-0.998*** (0.178)	-1.022*** (0.177)	-1.023*** (0.177)
교육수준	0.135 (0.113)	0.138 (0.114)	0.121 (0.113)	0.119 (0.112)
결혼상태(유배우자=준거집단)				
이혼, 별거	1.307** (0.487)	1.332** (0.486)	1.366** (0.486)	1.364** (0.487)
사별	1.996*** (0.527)	2.043*** (0.525)	2.075*** (0.527)	2.074*** (0.527)
결혼한 적 없음	0.389 (0.244)	0.462+ (0.247)	0.489* (0.245)	0.490* (0.246)
주관적 건강상태	-1.149*** (0.125)	-1.134*** (0.125)	-1.100*** (0.124)	-1.101*** (0.124)
부정적 생애사건	0.782*** (0.082)	0.764*** (0.082)	0.731*** (0.082)	0.728*** (0.082)
폭력피해경험	1.228* (0.526)	1.175* (0.524)	1.186* (0.519)	0.344 (1.505)
범죄불안		0.235** (0.078)	0.223** (0.078)	0.207** (0.077)
대인신뢰			-0.14** (0.043)	-0.146** (0.043)
피해경험 * 범죄불안				0.241 (0.437)
상수	24.336*** (1.219)	23.381*** (1.238)	24.550*** (1.270)	24.630*** (1.284)
<i>N</i>	3,835	3,835	3,835	3,835
<i>F</i>	43.23***	39.71***	36.87***	34.82***
<i>R</i> ²	0.219	0.222	0.226	0.226

주: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가 제시되었으며 괄호 안의 숫자가 표준오차임.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2>는 우울이 종속변수인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주관적 건강상태와 부정적 생애사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폭력피해경험과 범죄불안이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방식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1의 결과에 따르면, 폭력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신체, 정서, 언어, 성폭행 등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았다. 범죄불안을 포함한 모형 2의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범죄불안이 높을수록 우울도 높아졌다. 또한 범죄불안이 폭력피해경험과 우울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모형 2에서 범죄불안이 투입되었을 때 폭력피해경험의 계수가 모형 1의 경우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소폭이 매우 적었으며 모형 2에서 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매개효과의 비중을 모형 1과 2 사이에 발생한 폭력피해경험의 계수 감소폭을 통해 계산해보면 매개효과의 비중은 약 4.3% $((1.228-1.175)/1.228=0.432)$ 로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범죄불안의 매개효과를 소벨(Sobel)검정을 실시한 결과 범죄불안이 10% 수준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Z=1.67, P<0.10$). 반면, 모형 4에 폭력피해경험과 범죄불안의 상호작용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폭력피해경험과 범죄불안 간에 강화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과 4의 결과에 따르면 대인신뢰의 경우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대인신뢰가 높아질수록 우울이 낮아졌다.

3. 폭력피해, 범죄불안과 우울: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표 3>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 1에는 폭력피해와 대인신뢰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모형 2에는 범죄불안과 대인신뢰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범죄불안과 대인신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반면 폭력피해와 대인신뢰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대인신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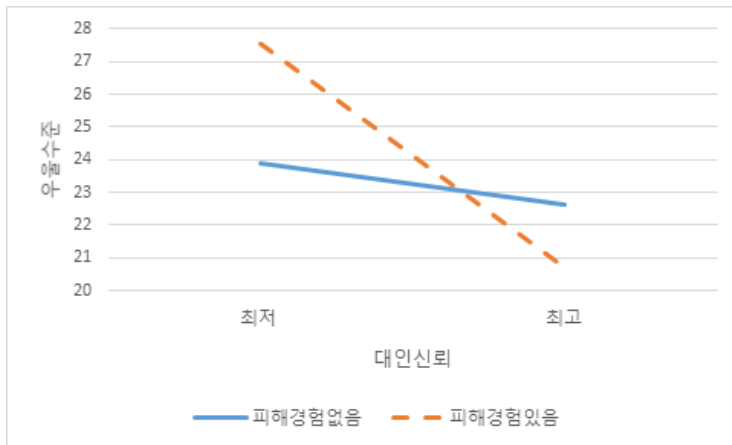
<표 3>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검증

	모형 1	모형 2
성별(여성=1)	0.181 (0.155)	0.170 (0.156)
연령	-0.012 (0.008)	-0.012 (0.008)
가구소득(로그)	-1.009*** (0.175)	-1.020*** (0.177)
교육수준	0.113 (0.113)	0.122 (0.113)
결혼상태(유배우자=준거집단)		
이혼, 별거	1.334** (0.487)	1.381** (0.486)
사별	2.078*** (0.527)	2.092*** (0.526)
결혼한 적 없음	0.447+ (0.245)	0.497* (0.245)
주관적 건강상태	-1.099*** (0.124)	-1.102*** (0.124)
부정적 생애사건	0.733*** (0.082)	0.727*** (0.081)
폭력피해경험	5.038* (2.047)	1.196* (0.518)
범죄불안	0.228** (0.078)	0.643+ (0.337)
대인신뢰	-0.106* (0.042)	0.033 (0.132)
폭력피해경험 * 대인신뢰	-0.570* (0.273)	
범죄불안 * 대인신뢰		-0.058 (0.042)
상수	24.214*** (1.252)	23.230*** (1.568)
<i>N</i>	3835	3835
<i>F</i>	35.7***	34.25***
<i>R</i> ²	0.230	0.227

주: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가 제시되었으며 괄호 안의 숫자가 표준오차임.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1>은 폭력피해와 대인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1>의 Y축은 우울의 예측치이다. <표 3>의 모형 1의 결과에서 상수, 폭력피해, 대인신뢰 및 상호작용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값을 0이라고 가정하고 산출한 예측치이므로 폭력피해와 대인신뢰의 수준에 따른 상대적 차이만을 보여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1>에 따르면 폭력피해경험 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신뢰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대인신뢰의 수준에 따라 우울의 수준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인신뢰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폭력피해 경험 없는 응답자의 경우 대인신뢰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의 수준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그림 1> 폭력피해경험 여부와 대인신뢰에 따른 우울수준

V. 결론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폭력피해경험, 범죄불안과 우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았다. 폭력피해경험은 범죄불안, 대인신뢰,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 및 다른 유형의 부정적 생애사건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결과와 일관되는 것으로(e.g., Gilboa-Schechtman & Foa 2001), 폭력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삶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불안, 즉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에 독립적인 영향을 가졌다. 범죄불안이 높아질수록 우울도 높아졌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범죄불안이 통제되었을 때 폭력피해경험의 계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폭력피해경험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불안이 피해경험과 우울 간에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소벨검증의 통계적 유의성이 1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긴장이론이 논의한 바와 같이,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자극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폭력피해경험은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고, 미래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요인이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면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피해경험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피해경험과 두려움이 중첩될 때 우울에 더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나 피해경험과 범죄불안 간에 유의미한 강화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부정적 효과가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자기통제력에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와는(Shippee 2012) 다른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폭력피해경험과 우울 간에 10% 수준의 부분매개효과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신뢰는 우울을 낮추는 독립적인 효과를 가졌고, 대인신뢰와 폭력피해경험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도 발견되었다. 인지적 사회자본인 대인신뢰가 높을 경우 심리적 안정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우울은 감소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이진향 외 2011; Rose 2000). 대인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낮

아지는 것은 모든 응답자들에게 공통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폭력피해경험이 있더라도 대인신뢰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긴장요인이나 부정적 정서가 일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나 자아탄력성 등의 자원에 의해 완화할 수 있다는 일반긴장이론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e.g., Robbers 2004).

또한 대인신뢰는 일종의 대체자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Ross & Mirowsky 2011). 대체자원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 불리한 위치의 사회적 약자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잘 알려진 대체자원은 교육수준으로, 교육수준의 긍정적 효과가 저소득층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이 다른 자원이 부족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결정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Ross & Mirowsky 2011). 유리한 위치의 사람에게 교육은 자신이 가진 여러 자원 중 하나이므로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교육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듯 대인신뢰는 폭력피해경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 폭력피해경험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의 수준이 대인신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면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보장하지 못한다. 폭력피해는 과거의 경험을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폭력피해경험이 범죄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가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불안과 대인신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인과관계를 확신하기가 어렵다. 우울이 범죄불안을 높이고 대인신뢰를 낮추는 관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갖는 경우 타인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도 범죄불안과 대인신뢰가 우울에 선행하는 독립변수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경험적, 이론적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e.g., Stafford et al. 2007; Kim et al. 2012).

둘째, 측정의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폭력피해경험의 경우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폭력의 유형, 피해빈도, 가해사실 여부 등 다양한 측면이 측정되지 못했다. 선행연구는 다른 유형의 폭력피해가 중첩되는 경우(학교폭력과 가정폭력)와, 가정

폭력 피해빈도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윤명숙·조혜정 2008). 또한 가해-피해 중복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해나 피해경험만 있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김재엽 외 2015). 이러한 연구들은 폭력피해의 유형, 빈도, 가해사실 여부 등 좀 더 구체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불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두려워하는지,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지를 구분하여 측정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되지 못했다. 향후 폭력피해경험에 대해 유형, 빈도, 가해사실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구분하여 조사한 자료의 분석이 요구된다. 폭력유형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피해경험자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크기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피해경험과 범죄불안은 우울뿐 아니라 분노나 불안과 같은 다른 유형의 부정적인 정서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노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셋째, 앞으로 폭력피해자의 대인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폭력피해 경험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유사한 폭력피해경험자 내에서도 신뢰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왜 그러한지, 어떠한 요인이 신뢰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한다면 폭력피해경험자들의 대인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입 방안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는 성차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성별에 따라 피해유형과 그에 따른 영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하여 폭력피해경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심리사회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폭력피해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 및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폭력피해경험과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폭력피해경험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폭력피해자의 대인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폭력피해경험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폭력피해경험자를 위한 사회적 개입 방안에서 대인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윤경. 2020. “사회적 자본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280: 18-32.
- 김미곤·여유진·김태완·정해식·우선희·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6-1.
- 김성언. 2018. “범죄 피해와 범죄의 두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2(1): 55-80.
- 김수연·최진아. 2018.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2): 73-88.
- 김은영. 2014. “학교폭력피해경험, 우울감,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의 관계 검증연구: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1(3): 93-116.
- 김재엽·성신명·김준범. 2015.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자기통제력과 가정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가해, 피해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83-109.
- 김재엽·송아영·박경나. 2008.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연구: 긴장요인으로서의 자녀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295-318.
- 김진숙·조성우·임영아. 2013. “학교폭력피해, 우울, 학업스트레스 간 인과관계 및 탄력성의 조절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26: 241-268.
- 남석인·최권호·민지아. 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자살성 남녀 비교: 서대문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467-491.
- 뒤르켐, 에밀. 2008[1897]. 《자살론》 황보종우 역. 청아출판사.
- 뒤르켐, 에밀. 2012[1893]. 《사회분업론》 민문홍 역. 아카넷.
- 박종훈·이경재·이성우. 2018. “서울 시민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서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도시연구》 19(4): 111-129.
- 윤명숙·조혜정. 2008.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가정폭력, 학교폭력, 중복폭력 피해경험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9: 295-329.
- 윤우석. 2016.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의 논의에 기초하여.” 《한국치안행정논집》 12(1): 95-118.
- 이도선. 2011. “청소년의 피해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한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0(4): 115-138.
- 이민아. 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U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한

- 국사회학》 47(4): 171-200.
- 이민아. 2020.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녕: 성별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여성연구》 106(3): 181-208.
- 이진향·박기수·김록범·김봉조·전진호. 2011. “개인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지》 36(2): 73-86.
- 이한주. 2017.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연구: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0(3): 274-283.
- 전신현. 2018. “청소년 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및 친구관계의 조절효과: 성별에 따른 두 대립가설의 검증.” 《피해자학연구》 26(30): 171-191.
- 정해식·김미곤·여유진·전진아·김문길·우선희·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52.
- 조용오. 2021.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조절효과 검증.” 《경찰학연구》 21(2): 137-162.
- 조준택. 2019. “범죄피해, 범죄두려움, 범죄율과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다수준 분석: 경찰활동의 영향에 대한 탐색.” 《형사정책》 31(2): 169-202.
- 최동주·이묘숙. 2016.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인신뢰 매개효과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11): 627-637.
- 황지태·노성호. 2010.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dams, R.E. and R.T. Serpe. 2000. “Social Integration, Fear of Crime, and Life Satisfac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3(4): 605-629.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gnew, R. 2002. “Experienced, Vicarious, and Anticipated Strain: An Exploratory Study on Physical Victimization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19(4): 603-632.
- Agnew, R. 2006. “General Strain Theory: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in F.T. Cullen, J. P. Wright, and K.R. Blevins (Eds.),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pp. 101-123). Transaction Publishers.
- Agnew, R. 2013. “When Criminal Coping is Likely: An Extension of General Strain Theory.” *Deviant Behavior* 34(8): 653-670.
- Baron, R.M. and D.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tts, L.R., J.E. Houston, O.L. Steer, and S.E. Gardner. 2017. "Adolescents' Experiences of Victimization: The Role of Attribution Style and Generalized Trust." *Journal of School Violence* 16(1): 25-48.
- Cheung, N.W.T. and Y.W. Cheung. 2010. "Strain, Self-control, and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among Chinese Adolescents: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Sociological Perspectives* 53(3): 321-345.
- Constantin, K. and K. Boyett. 2021. "Does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Contribute to Deviant Behavior?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Victims & Offenders* 16 (6): 869-892.
- Dario, L.M. and E.N. O'Neal. 2018. "Do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Sexual Victimization Differ between Males and Females: A General Strain Theory Approach." *Women & Criminal Justice* 28(1): 19-42.
- Frazier, P., .S. Anders, S. Perera, P. Tomich, H. Tennen, C. Park, and T. Tashiro. 2009. "Traumatic Event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Prevalence and Associated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3): 450-460.
- Gilboa-Schechtman, E. and E.B. Foa. 2001. "Patterns of Recovery from Trauma: The Use of Intraindividu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3): 392-400.
- Hanslmaier, M. 2013. "Crime, Fear and Subjective Well-being: How Victimization and Street Crime Affect Fear and Life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0(5): 515-533.
- Kaufman, J.M. 2009. "Gendered Responses to Serious Strain: The Argument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Deviance." *Justice Quarterly* 26(3): 410-444.
- Kilian, R., A. Müller-Stierlin, N. Lamp, C. von Gottberg, and T. Becker. 2021. "Criminal Victimization, Cognitive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in an Urban Region in Germany: A Path Analysi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https://doi.org/10.1007/s00127-020-02021-5>
- Kim, S. and Y. Lee. 2020. "Role of Self-esteem and Family-level Social Capital in the Pathway from Victimization to Aggression." *Child Abuse & Neglect* 107: 104620.
- Kim, S., Y. Chung, M.J. Perry, I. Kawachi, and S.V. Subramanian. 2012. "Association between Interpersonal Trust, Reciprocity, and Depression in South Korea: A Prospective Analysis." *PLoS ONE* 7(1): e30602.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30602>
- Lee, M. 2015.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and Suicidality: The Mediating Roles of Re-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44: 130-139.

- Leone, J.M and J.M. Carroll. 2016. "Victimization and Suicidality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4(6): 421-428.
- Lewin, A., S.J. Mitchell, A. Rasmussen, K. Sanders-Phillips, and J.G. Joseph. 2011. "Do Human and Social Capital Protect Young African American Mothers from Depression Associated with Ethnic Discrimination and Violence Exposur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7(3): 286-310.
- Merton, R.K. 1957.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Mirowsky, J. and C. Ross. 2002. "Measurement for a Human Scie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152-170.
- Mitchell, C.U. and M. LaGory. 2002. "Social Capital and Mental Distress in an Impoverished Community." *City & Community* 1(2): 199-222.
- Perron, B.E., B. Alexander-Eitzman, D.F. Gillespie, and D. Pollio. 2008. "Modeling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Victimization among Homeless Persons." *Social Science & Medicine* 67(9): 1475-1479.
- Putnam, R.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Robbers, M.L.O. 2004. "Revisi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train: A Gendered Test." *Sociological Inquiry* 74(4): 546-569.
- Roccato, M., S. Russo, and A. Vieno. 2011. "Perceived Community Disorder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7): 884-888.
- Rose, R. 2000. "How Much Does Social Capital Add to Individual Health? A Survey Study of Russians." *Social Science & Medicine* 51(9): 1421-1435.
- Ross, C. and J. Mirowsky. 2011. "The Interaction of Personal and Parental Education on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72(4): 591-599.
- Shippe, N.D. 2012. "Victimization, Fear of Crime, and Perceived Risk: Testing a Vulnerability Model of Personal Control." *Sociological Perspectives* 55(1): 117-140.
- Stafford, M., T. Chandola, and M. Marmot. 2007. "Association between Fear of Crime and Mental Health and Physical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11): 2076-2081.
- Teitelman, A., S.J. Ratcliffe, C.C. McDonald, B.M. Brawner, and C.M. Sullivan. 2011.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nd Non-physical For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Depression among Urban Minority Adolescent Female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6(2): 92-100.

van der Velden, P.G., I. Komproe, C. Contino, M. de Bruijne, R.J. Kleber, M. Das, and H. Schut. 2020. “Which Groups Affected by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PTEs) Are Most at Risk for a Lack of Social Support? A Prospective Population-based Study on the 12-month Prevalence of PTEs and Risk Factors for a Lack of Post-event Social Support.” *PLoS ONE* 15(5): e0232477.

<접수 2021.06.14; 수정 2021.08.11; 게재확정 2021.08.17>

Associations between Violent Victimization, Fear of Crime, and Depressive Symptoms: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Min-Ah Lee,
(Chung-Ang University)
Kyungmin Kim
(Chung-Ang University)

Based on general strain theor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violent victimization, fear of crime and depressive symptoms using an integrative approach, and to analyze if and how interpersonal trust moder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victimization, fear of crime and depressive symptoms. Multiple regression and the Sobel test were used. The findings showed that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were positively and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fear of crime marginall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dition,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victimization and interpersonal trust was detected. The depressive symptoms of victims substantially decreased as the level of interpersonal trust increased. This suggests that interpersonal trust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terpersonal trust can reduce the harmful effect of victimization on mental health.

Key words: violent victimization, depressive symptoms, fear of crime, interpersonal trust, moderation, general strain theory